



2022년 / 6월 4주차

연구원 소식 및 회원 소식

왕기석 이사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공연 안내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님이 6월 8일, 15일, 22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얼썬마루 소공연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을 공연합니다. 2019년 춘향가와 흥부가를 시작으로 2020년 심청가, 2021년 수궁가에 이어 올해에는 적벽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담판)
왕기석

2022. 6월 -
8월 15일 2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썬마루 소공연장

주최 · 주관 국립민속국악원 후원 국립무형유산원

정상식 회원 박동화 연극상 대상 수상



우리 연구원 정상식(연극협회 완주지부장) 회원이 '제25회 박동화 연극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가 주최하고 박동화 연극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박동화 연극상'은 전북 연극의 중흥기를 창출한 박동화 선생의 투철한 연극 운동의 열정을 기리고 외길 인생의 참뜻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해마다 그의 작고일(6월 22일)을 전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식 회원은 1986년 극단 활동을 시작으로 연출, 연기, 기획 등 다양한 연극공연 분야에서 현재 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연기부분의 인재를 교육하는 일에도 힘써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사)한국연극협회전북지회 완주지부를 설립해 현재까지 지부장으로 봉사하며 전북 연극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내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식 회원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1946년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 - 1985. 6. 24 구로동맹 파업



점거농성 중인 대어패럴 노동자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진 아카이브>

1985년 6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우 그룹 계열 의류 봉제 수출회사였던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구로구에 있는 공장에서 조합 결성,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회유와 겁박으로 결성 당시 1,40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은 100여명으로 급감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여성부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2일 서울 남부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0의 9 섬유제조업체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김준용(27세), 노조사무장 강명자(22세), 노조원 추재숙(24세) 등 3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해 노조결성 이후 계속되어 온 대우어패럴 노사분규는 지난 4월 30일 사측과 노조가 임금인상 등에 관해 타결을 봤었으나 회사측이 다시 노조간부들을 노동쟁의 조정법 등의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향신문, 대우어패럴 시위주동 노조간부 3명 영장, 1985. 6. 22. 기사 중

이미 두 달 전 노사협상이 완료되어 어느 때보다 노사 관계가 평화롭던 시기에 두 달 전의 일을 새삼스레 문제 삼아 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공안 정책상의 결정임이 명백했다.

공안 당국은 대우어패럴 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이 구로공단의 노동운동을 궤멸시킬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구로공단에 있던 노동자들은 1946년 이후 최초로 정치적 동맹파업을 일으킨다. 이 파업을 주도한 것이 당시 대우어패럴 미싱사였던 심상정(현 정의당 대표)이다. 이를 우리는 구로동맹파업이라 부르고 있다.

구로공단에 있던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의 동맹파업을 시작으로 25일 남성전기·세진전자·롬코리아의 준법 농성, 27일 삼성제약의 중식 거부, 28일 부흥사의 파업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주류를 이룬 파업 현장에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남성 관리자들이 투입됐고 농성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결국 최후의 보루로 남은 대우어패럴에 단전, 단수를 단행한다. 전쟁터의 적군에게도 의약품과 물은 준다는 인도주의 원칙은 '불법 파업'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지키고 굶주린 노동자 100여명이 지키던 농성장 벽을 관리자들이 뚫고 들어왔고, 구로동맹파업은 끝났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오늘에도 정치적 연대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당시 연대파업은 당연히 불법이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 전 일어난 화물연대 사태처럼 노동자의 파업은 늘 국가적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받는 것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이 이런데 남의 공장이 파업한다고 해서 덩달아 파업한 그들에게 어떤 돌팔매질이 날아갔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 날 구로공단 노동자들은 오늘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이들이었다. 대우어패럴이 무너지면 다음은 효성물산이고 효성이 무너지면 가리봉전자가 무너지고 가리봉이 무너지면 선일섬유가 무너지고 선일이 무너지면 남성전기가 무너지고...그 절박함을 한 시도 놓지 않고 살던 이들이었으니 말이다. 그들은 어제 무너진 옆 공장이 오늘 내 일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줬다.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 전두환 정권에 맞섰고 1천명이 해고되는 희생을 치르면서도 싸웠다.

나의 행복이 내 앞에 선 다른 이의 등판에 칼을 꽂아 만들어진 것임을 애써 외면하는 이들이 늘 어가고 나의 편안한 일상이 내 앞에 선 다른 이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이들은 시나브로 사라져는 오늘, 1985년 6월의 구로는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